

한중경제포럼

제10-05호 2010년 10월 15일

“12차 5개년” 기획 기간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과 성장 전망

2010년 제5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12차 5개년” 기간 중국경제사회 발전 방향과 성장률 전망
2. 일 시 : 2010. 9. 16 (목) 16:00~18:00
3. 발표자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발전전략과 지역경제연구부 주임 리산통(李善同)

1. “11.5” 기간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와 문제점

- “11.5”기간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조방형 경제성장의 특징이 명확하였음.
- “11.5”기간 연 평균 GDP 성장률은 10%를 넘어서 “10.5”기간의 9.6%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빠른 성장으로 2008년 중국의 GDP는 30조 위안을 넘어섰고, “11.5”말에는 35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대규모 투자로 성장하여 조방형 성장의 특징이 명확하며, 자본대비 산출량 비율이 높지 않고 전체 요소 생산율이 낮으며,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등 문제가 있음.

□ 경제구조가 개선되었지만, 부조화 문제가 명확함

- “11.5”기간 중국 경제구조는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취업구조 고도화, 지역발전 격차 감소, 지역 재정 균등화 수준 향상 등에서 일정한 개선을 이루었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구조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며, 새로운 환경 하에서 일부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었음. 예를 들면 산업구조 불합리, 국내외경제 부조화, 투자소비 관계 부조화, 도시와 지역발전 부조화, 소득분배 관계 불합리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성장 동력이 강화되었지만, 체제와 과학기술 혁신은 미흡함.

- “11.5”이래 체제개혁 심화, 대외개방 확대와 과학기술 진보에 따라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되었음.
- 하지만 제도 측면에서 여전히 생산력발전을 제약하는 장애요인이 있음. 예컨대 자원과 요소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낙후, 투자와 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비공유경제의 투자 제한, 서비스무역 분야의 완만한 개혁개방 등임.
- 동시에 과학기술 혁신능력이 사회 경제성장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함. 시장 지향적인 기업을 주체로 하는 산학연 과학기술 혁신체제가 구축되지 못하였음.

□ 각종 사회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 조화성을 향상시켜야 함.

- “11.5”기간에 중국의 사회건설이 크게 추진되었고 각종 사회사업이 진행되었음. 예컨대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의 전면적인 추진, 도시와 농촌 공공의료체계와 기본의료 서비스체계의 기본적인 구축, 각종 사회보장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사업기관 기본 양로보험제도 개혁의 시범 시작, 신형 농촌사회 양로보험 제도의 완비 등임.
- 하지만 교육, 의료 등 사회사업의 발전은 여전히 낙후하고 취업압력이 증대되었으며 사회갈등이

심각함.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가 불균형적이고 기초교육 균등화 진행이 더딤.

□ 생태문명 건설이 가속화되었지만, 자원절약과 생태환경 관리 임무가 과중함.

- “11.5”기간 중국의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건설이 가속화되었고 에너지절약과 배출감소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생태환경 악화세가 억제되었음.
- 하지만 자원절약 및 생태환경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중국은 EU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었으며, 폐수 배출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08년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2,321만 톤을 기록하였음.

표1. 최근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과 주요 오염물 변화

	‘10·5’기간 변화 (2005년과 2000년 비교)	‘11·5’기간 변화 (전년도 대비)			
		2006년	2007년	2008년	완성상황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량	2.52%	-1.83%	-5.15%	-5.20%	계획의 60.9% 완성
이산화황	27.77%	1.54%	-4.66%	-5.83%	계획의 89.5% 완성
화학적 산소 요구량	-2.13%	0.98%	-3.14%	-4.45%	계획의 66.1% 완성

□ 중국 경제성장의 난제는 완만한 성장방식 전환임.

- 현재 중국 경제사회 성장에 일련의 갈등과 문제점이 존재하는 근본원인은 바로 성장방식의 전환이 완만하고 저원가의 요소투입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패턴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또한 투자와 소비 및 수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패턴이 형성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익분배 관계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효과적인 공공자원 분배 메커니즘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임.

2. “12.5” 기간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환경

□ 국제금융위기와 글로벌경제의 재균형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섰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내수를 더욱 중시할 전망이다.

- 세계 주요 경제체는 자원 공급경제체, 중저급 제조업 제품생산 경제체, 고급 제조업 제품생산 경제체와 소비주도형 경제체로 구분됨.
- 이는 대표적인 자원공급-제품생산-소비 순환모델로, 과거 이런 순환은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세계경제에 막대한 리스크가 형성되었음.
-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산업분업 모델이 조정되고 있음.
- 주요 경제체가 채택한 경제정책은 세계경제의 재균형 추진방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주요 경제체의 경제정책, 특히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한 무역보호조치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환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음. 국제무역보호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세계무역은 금융위기 이전처럼 빠른 발전이 불가능함.
- 따라서 “12.5”기간 중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려면 국내수요를 확대하고 경제성장 구조를 수출지향성·투자견인에서 내수지향성, 수출과 투자가 공동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델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성장의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 더욱 많은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채택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배출 감소 압력은 가중될 것임.

- 현재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선진국인 미국과 EU의 의견이 상이하고 각 국가간의 갈등이 많지만, 국제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문제는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국제적 조율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각국 무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환경표준”과 “녹색 장벽”이 다자무역협상의 중요한 내용으로 될 것임.

- 환경보호산업은 소수 선진국의 작은 범위를 벗어나 세계 각국에서 빠른 발전을 이룩할 것이고 세계 대부분 국가의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로 부상할 것임. 이는 환경보호의 장기적인 이익과 경제성장의 현실적인 이익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12.5”기간 중국이 직면한 국제적 배출감소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및 생태 환경 보호 방식의 성장이 중시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주요 상품 및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겠지만, 불균형적인 분포로 상품 및 에너지의 세계화 전략은 각국의 필연적 선택으로 될 것임.
- 향후 주요 상품 및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제약과 영향도 더욱 명확해 질 것임.
 - 향후 개도국이 세계에너지 수요증가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선진국의 에너지 수요 또한 계속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전 세계 주요 상품 및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지만, 상품의 공급은 전체적으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 기본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광산자원 지역적 분포가 불균형적이므로 주요 상품 및 에너지의 전 세계화 전략이 각국의 필연적 선택으로 될 것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상품 및 에너지 확보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중국은 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고 철광석, 동광석 등 자원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
- 새로운 기술혁명은 미래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이고 기술 확산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것임.

- 향후 세계 과학기술의 혁신은 국력과 사회 경제구조 및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미래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개도국의 경제지위가 향상되고, 세계화에 따라 세계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원화될 전망이다.
-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이 핵심적인 기술개발의 주체로 활동할 것임.

□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중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중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전문적인 분업과 규모경제를 형성하지 않을 경우, 중등소득국가는 자본 한계수익의 체감에 따라 과거 빠른 성장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중등소득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임.
- 예컨대 라틴아메리카국가는 중등소득국가에 들어선 후 완만한 경제성장, 심각한 국내 인플레이션, 소득 불균형 등 많은 새로운 갈등과 문제가 나타났음.
- 중국은 "12.5"기간 중등소득국가 함정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할 것임.

□ 전 세계 및 각국의 경제활동은 공간적으로 계속하여 집중될 것이지만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집중속도는 완만하게 될 것임.

-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은 세계화의 명확한 특징임.
-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은 주로 규모경제, 지방화 경제와 도시화 경제에 따른 것임.
- 향후 세계 각국의 내부경제는 여전히 일정한 집중추세를 지속할 것이지만, 각국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그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경제성장은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경제성장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임무임.

- 1978-2009년 사이 중국의 평균 GDP성장률은 9.85%에 달하였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7년의 0.7%에서 2008년의 7.1%로 상승하였음.
- 2008년 환율을 기준으로 중국 일인당 국민소득(GNI)은 2,940달러로 세계 평균의 34%(127위)였으며, 구매력평가(PPP)에 따라 추산할 경우 일인당 GNI는 6,020달러로 세계 평균의 58%(122위) 수준이었음.
- “12.5”기간 및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발전수준 제고와 경제실력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임.

그림1. 주요 국가/지역의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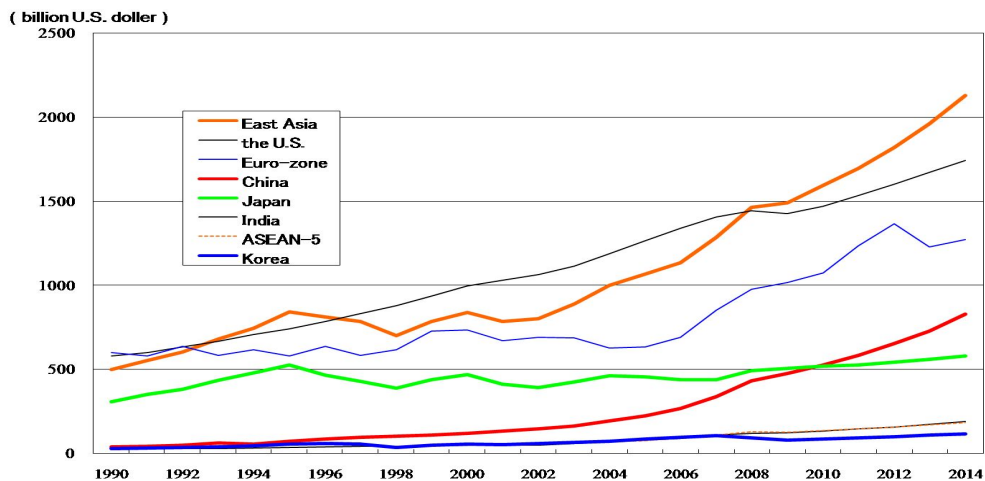


표2. 중국 경제의 국제적 지위 변화 (세계 점유율)

(단위:%)

연도	인구	GDP/GNI	수출입
1977	22.4	0.7	0.6
1987	21.7	1.4	1.7
1997	21.1	2.7	2.9
2002	20.7	3.4	4.8
2003	20.5	4.1	5.6
2008	19.8	7.1	7.9

□ 중국의 전통적인 비교우위, 특히 노동력 경쟁우위가 점차 약화될 것임.

- 노동가능 인구는 2018년에 최고치에 달할 것이고, 노동력 총량 증가세가 완만하거나 감소되어 중국의 노동력 공급 우위와 노동 비용우위가 약화될 것임.
- UN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 중국 인구는 최고치에 달할 것이고, 16~65세 사이의 노동적령인구는 2018년에 최고치에 달할 것임.
- 인구 노령화의 심화,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신규 노동법의 실시 등에 따라 노동 비용이 상승하게 될 것임.

□ 생태와 환경요소에 대한 제약이 더욱 두드러져 생산력 분포와 자원 환경 수용력의 상호 적응, 환경 생태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임.

- 환경과 생태보호에 대한 강화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에 필수 조건임.
-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담수·토지·생태환경 등 직접 거래가 불가능한 요소들로 인해 경제성장이 제약받게 될 것임.

3. 중국 경제의 발전방향

□ 중국경제의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국내 수요, 특히 국민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수요구조를 고도화해야 함.

-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은 미래 중국의 중요한 발전방향임.
- 사회보장 강화와 공공서비스 완비를 위해 정부지출 중 공공서비스 지출 비중을 확대해야 함.
- 국민소득 분배 패턴의 조정, 국민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상향 조정, 국민소득 수준

제고, 도시와 농촌의 소비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함.

□ 성장방식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됨.

- 사회보장 완비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중점으로 한 민생 개선, 내수확대 전략
- 중고급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중점으로 한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
- 농민공의 시민화 추진을 중점으로 하는 도시화 전략
-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과 국토자원개발 패턴을 중점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
- 에너지절약, 배출감소 촉진과 생태환경보호, 단위 GDP당 탄소배출량 감소를 중점으로 한 녹색 성장 전략

□ 저 배출 경제성장 모델 추구

- 기후변화로 각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방식을 채택할 것이며, 중국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어서 저 배출 경제의 실현은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임.
- 저 배출 경제 추진 시 저탄소 이외 기타 오염물의 배출 감소도 고려해야 함.
- 가격조정 등을 비롯한 경제, 행정, 법률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친환경 및 자원절약형 생산과 소비 선호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국제 주요상품 가격의 상승과 파동, 세계경제 구조의 조정은 중국의 과거 성장방식에 도전을 가져다주었고, 중국 경제성장이 혁신과 기술진보에 의존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1차 혁신과 자체혁신 능력의 제고를 중시하는 동시에 통합과 도입을 통한 재혁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산업발전 방식의 전환과 혁신을 밀접히 연결시켜 기술함량 제고, 선진적인 제조업 추진, 고부가가치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세계 제조업 산업사슬에서 중국 산업지위의 향상을 실현해야 함.
- 현대 과학기술과 산업조직을 활용해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함. 특히 공공서비스, 생산성 서비스 관련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함.

□ 균형적인 무역발전 추구

- 국제경제의 조정은 미래 중국 경쟁우위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임. 예컨대 노동력 비용, 산업연계 등 변화로 인해 중국의 무역발전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중국이 더욱 균형적인 무역발전 방식을 채택하도록 촉진할 것임.
- 수출시장의 다원화
- 외자이용에 있어 다국적 기업의 고급제품 제조·혁신과 연구개발·지역 본부 등 고부가가치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입하여 중국의 혁신능력 향상,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경제체제 완비에 대한 외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 또한 중서부 지역으로의 외자 이전과 투자증가를 유도

4. “12.5” 기간~2030년 중국 경제성장 전망- 시나리오 분석

가. 모형소개

- “12.5”기간~2030년 중국 경제성장 전망에 사용된 모형은 국무원발전연구센터에서 개발한 DRC-CGE 모형임.
- 시뮬레이션 기간은 2008년~2030년으로 모형은 42개의 생산부문과 12개의 주민 그룹, 5가지 생산요소를 포함함.
 - △생산부문은 농업, 24개 공업, 건축업, 16개 서비스업으로 구성, △주민 그룹은 7개 도시주민

그룹, 5개 농촌주민 그룹으로 구성, △생산요소는 농업노동력, 생산직 근로자, 기술직 근로자, 자본, 토지로 구성됨.

- 모형의 기준년도는 2007년으로 통계수치는 주로 2007년 중국 투입산출표를 기준으로 편집한 2007년 사회회계행렬에 근거하였음.

나.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 분석법(Scenario Analysis)을 이용하여 향후 중국 경제성장 분석을 실시하였음.

- 개혁개방 이후의 발전 추세를 기초로 하여 ‘기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주요요인(인구, 노동력, 자연자원, 수출, 기술진보 등)이 계속하여 과거의 추세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함. 이는 정책과 외부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상황하의 경제발전을 반영한 것임.
- 중장기 중국 경제발전이 당면한 주요 리스크와 조정방향에 근거하여 두 가지 대조 시나리오 즉,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와 ‘리스크 시나리오’를 설정함(표 1. 참고).
 - 발전방식을 신속히 전환하지 못해 현재 중국은 자원과 환경의 압력이 점점 가중되고 산업구조와 투자소비의 불균형, 심각한 사회 불균형 등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이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고찰하였음.
 - 리스크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경제 발전 중 직면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각종 리스크와 도전을 고려하였음.

표3. 향후 중국 경제성장 분석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 유형	시나리오 설정
	모든 시나리오의 동일한 기본설정: 1) 총인구 변화 추세 외생변수, 유엔의 예상 통계수치를 이용 2) 노동력 총량의 증가 외생변수, 농업토지의 공급변화 외생변수 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세율과 이전지출은 계속하여 불변 4) 2010~2030년 국제수지는 점차 균형에 도달
기준 시나리오 (A)	이하 설정: 1) 도시화수준 및 도농인구 외생변수, 2007~2020년 도시화율 연평균 0.9%p 상승, 2021~2030년 도시화율 연평균 0.7%p 상승 - 도시화와 공업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도시화 수준이 매년 0.85~0.55%p 제고될 것임. - 11.5 계획 기간 말 도시화율은 47%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도시화율은 약 52%, 2030년 약 65%로 제고될 전망 2) 정부 소비증가율 외생변수 3) 총요소생산성(TFP) 외생변수, 2005~2020년의 TFP 증가율 여전히 과거 25년의 평균수준을 유지, 즉 약 2%의 수준을 유지(제조업의 TFP는 서비스업보다 0.5~1%p 높음). - 농촌노동력 여전히 이동 중, 인력자본의 누적,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 체제개혁 한층 강화, 각 부처들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화되어 2008~2030년 TFP 연평균 성장률이 약 2%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4) 기술진보의 경향성 및 중간투자율의 변화 외생변수 - 수출의 성장속도는 점차 하락하여 장기간 무역흑자를 보일 것이나, 액수는 점차 감소하면서 2030년쯤 대외무역 수출입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임.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 (B)	신속하고 순조로운 각 체제 개혁의 진행,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강화, 대폭적인 구조조정 추진,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진전 등을 가정함. 이하 설정: 1) 에너지세, 탄소세를 징수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 - 기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2010~2015년 자원세율을 10% 상향 조정, 2010년부터 탄소세를 징수, 이산화탄소 톤 당 10위안에서 50위안으로 상향 조정, 2010~2030년 간 평균 에너지 이용 효율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1%p 높음. - 탄소세 수입은 주로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첨단기술 산업 조세우대에 이용 2) 교육, 의료 및 과학연구,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 - 정부 공공지출의 구조를 조정, 교육, 의료 및 과학연구, 사회복지 방면에 대한 지출 비중 확대 3) 도시화를 신속히 진행하여 노동력 이전 장벽을 점진적으로 해소 - 2010~2030년 도시화율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매년 0.25%p 상승, 도농 노동력의 이전을 가속화 4) 국유기업, 독점기업의 분배 시스템 조정

	- 최근 중국 국민의 저축률 지속 상승,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업의 저축률 상승, 기업의 저축률 상승은 경제구조의 부조화를 유발함. 기업의 저축률 상승은 국유기업과 독점기업의 불합리한 분배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유기업의 저축 비중을 낮추고 이윤 상납 비중을 2010~2030년 간 3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함. - 빈곤지역과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을 상향 조정, 2010~2030년 기준 시나리오보다 10~15% 높음. 5) 서비스 산업의 규정 개혁을 완비하고 서비스 산업의 세 부담을 감소 - 장기적으로 중국 서비스업의 비중이 느리게 증가, 이는 현재 중국의 발전환경과 많은 제도적 규제와 관련이 있다고 봄. - 현재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는 주요 서비스업은 금융, 철도, 고속도로, 항공, 전신, 전력, 도시 급수 등의 독점업종임. - 2010~2030년 서비스업의 TFP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0.9% p 높고 서비스업의 세 부담은 10% 감소함.
리스크 시나리오 (C)	이하 설정: 1) 완만한 도시화 진행, 노동력 이전 역시 완만 - 완만한 도시화 발전은 효율적인 노동력 이전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집결효과와 소비구조 업그레이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제약하여 “좋으면서도 빠른(又好又快) 경제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2010~2030년 간 도시화율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매년 0.2% p 낮음. 도농 노동력의 이전 속도 역시 기준 시나리오보다 느림. 2) 세계경제 느리게 회복, 보호무역이 나날이 심각 - 대외수출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2000년 이후 중국의 수출 성장속도는 매년 20% 이상이었고 GDP(재화와 용역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3.3%에서 2008년 36.9%로 8년 간 12.6% p 증가하였음. - 기준 시나리오의 수출수요가 단기 내에 정상적인 성장회복이 가능한 것과 달리, 국제시장의 중국 수출에 대한 수요는 12.5 규칙 기간 이후에나 정상적인 성장회복이 가능, 2015~2030년 간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을 받아 수출 증가속도도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음. 3)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수입 제한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 당 100달러 이상으로 돌아감. - 최근 중국 경제의 신속한 발전으로 각 자원에 대한 중국의 대외의존도 역시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원유와 철광석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2007년 중국 생산원유는 1.86억 톤 수입원유 2.11억 톤, 수입원유가 이미 국내생산량을 초과, 철광석은 1990년 1,419만 톤을 수입→ 2008년 4만 4,413만 톤으로 증가함. 중국 철광석 사용량은 1990년의 1억 9,350만 → 2007년 10억 9,040만으로 증가하여 2008년 중국 철광석의 수입의존도는 49.5%임. 국제에너지와 자원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경제발전은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임. 4) 체제개혁의 진행이 신속하지 못하고 기술 혁신과 효율 개혁 또한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여 TFP가 기준 시나리오보다 약 0.4% p 하락함.

자료: 『经济研究参考』(2010年 第43期) 「“十二五”时期至2030年我国经济增长的前景展望」

표4.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GDP 성장 및 그 근원

(단위: %)

연도	2008~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GDP 성장률	8.7	7.9	7.0	6.6	5.9
그 중:					
노동력 성장률	0.4	0.5	0.0	0.0	-0.3
자본 성장률	12.6	9.4	8.4	7.8	6.7
TFP 성장률	0.9	2.0	2.0	1.9	2.0
성장의 근원:					
노동력	0.2	0.2	0.0	0.0	-0.1
자본	7.6	5.7	5.0	4.7	4.0
TFP	0.9	2.0	2.0	1.9	2.0

표5.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 하에서 GDP 성장 및 그 근원

(단위: %)

연도	2008~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GDP 성장률	8.7	8.4	7.2	6.6	5.8
그 중:					
노동력 성장률	0.4	0.5	0.0	0.0	-0.3
자본 성장률	12.6	9.2	7.5	6.8	5.5
TFP 성장률	0.9	2.7	2.7	2.6	2.6
성장의 근원:					
노동력	0.2	0.2	0.0	0.0	-0.1
자본	7.6	5.5	4.5	4.1	3.3
TFP	0.9	2.7	2.7	2.6	2.6

표6. '리스크 시나리오' 하에서 GDP 성장 및 그 근원

(단위: %)

연도	2008~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GDP 성장률	8.7	7.0	5.7	5.1	4.3
그 중:					
노동력 성장률	0.4	0.5	0.0	0.0	-0.3
자본 성장률	12.6	9.2	6.9	6.1	4.9
TFP 성장률	0.9	1.3	1.6	1.4	1.5
성장의 근원:					
노동력	0.2	0.2	0.0	0.0	-0.1
자본	7.6	5.5	4.1	3.7	2.9
TFP	0.9	1.3	1.6	1.4	1.5

5. 주요 결론

□ 향후 중장기 중국경제는 여전히 빠른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 “12.5”기간 경제성장률은 8%에 근접한 7.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2016~2020년 연 성장률은 7.0%, 2030년 전까지 약 6%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중국의 GDP총량은 7.46~7.63조 달러로 세계 2위 GDP 대국으로 부상할 것임. 일인당 GDP는 2015년 5천 달러, 2020년 7천 달러, 2025년 1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중국의 GDP총량은 미국(14.20조 달러)의 23.8%에 불과함. 하지만 향후 미국이 약 2.8%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미국GDP 대비 중국의 비중은 2015년 43.3%, 2020년 53.0%, 2030년 73.8%로 상승할 전망이다(환율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 지속적인 자원 환경 압력 강화와 경제성장의 조화로운 부족(协调性较差)은 중장기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제약요소가 될 것임.

-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에너지소비 총량은 2007년의 26.56억 톤에서 2015년 41.25억 톤, 2020년 54억 톤, 2030년 80억 톤으로 상승할 것임. 에너지소비 총량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속 증가할 것이며 배출량은 2007년의 66.24억 톤에서 2015년 96.20억 톤, 2020년 123억 톤, 2030년 182.6억 톤으로 상승할 것임.
- 동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05~2020년 단위 GDP당 온실가스 배출은 3.07톤/만 위안에서 2.01톤/만 위안, 배출강도는 34.5% 하락하여 중국정부에서 공포한 40~45%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임.
- 조화로운 부족의 근본원인은 기존의 조방형 경제성장 방식임.

- 조화로우미의 부족(协调性较差)은 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여전히 고정자산 투자라는 점, ② 저렴한 자원가격으로 인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느리다는 점, ③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높은 저축률이 소비에 영향을 미쳐 소비의 경제성장 촉진역할이 부족하다는 점, ④ 노동력 이전과 농민공의 시민화 추진 등에 여전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도시화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려 경제성장을 위한 도시의 촉진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서 나타남.

□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을 실현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발전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시와 농촌의 격차 감소, 자원 낭비와 오염물 배출 감소 등 효과를 보게 될 것임.

-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 하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조정과 생산효율을 제고하여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에 유리함.

- 2015년, 2020년, 2030년의 에너지소비 총량은 각각 35.5, 40.39, 51.1억 톤으로,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각 5.7억 톤, 13.6억 톤, 33.1억 톤 감소되고, 2005~2020년 탄소 배출량이 5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 제시한 배출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층 강화된 개혁과 발전방식의 실질적인 전환이 필수적임.

- 다양한 조치, 특히 조세를 이용한 가격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이용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함.

- 정부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교육, 의료, 위생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비중을 확대하며 사회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킴. 국민에 대한 복지수준을 직접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국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를 증대시켜 소비와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추진해야 함.

- 도시화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시의 질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함.

<질의·응답>

질문 1.

2010~2030년 사이 중국의 국제수지가 균형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DRC-CGE모델에서는 국제수지가 언제 균형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이때 환율 변동을 고려하였는가, 아니면 2008년 환율을 기준으로 하였는가?

답변 1.

중국의 대외무역이 언제 균형을 실현할 것인가는 전망하기 어려움. DRC-CGE모델은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환율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중국의 무역수지 균형은 환율의 절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구조 개선을 통해 실현될 것임.

질문 2.

지난 20년간 중국의 TFP는 2%의 성장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조방형 경제성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조방형 이라고 보는가?

조방형에서 혁신형으로의 발전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TFP는 2%로 가정하였지만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 하에서의 TFP는 더욱 높은 수준에 있지 않겠는가?

‘리스크 시나리오’ 하에서 완만한 도시화 진행, 완만한 세계경제 성장 등의 리스크를 제시하였는데 그 외에 더욱 심각한 위험요소는 없는가? 예컨대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이에 따른 은행의 부실채권 등 문제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 등은 없는가?

답변 2.

중국 경제를 조방형 경제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경제 조화성의 부진임. 자원가격이 낮고 자원이용 효율이 저하되면서 자원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음. 자원의 대외의존도는 2002년부터 상승세를 지속하였음. 둘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적고 소비의 증가속도가 완만하며 경제에 대한 소비의 견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셋째, 노동력 이동 과정에서 농민

공의 시민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견인작용이 제한을 받고 있음. 넷째, 경제성장 패턴에 문제가 많고 산업구조나 무역구조 등 구조적 측면에 있어 자원과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큼. 수출제품 중 탄소이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내 산업의 과잉 문제가 심각함. 특히 철강, 시멘트, 유리, 전해질 알루미늄 등 산업의 과잉이 심각함.

여러 연구에 따라 TFP 성장률의 결과는 매우 다양함. 중국의 2%는 높은 수준이 아님.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에서 구조변화와 서비스 산업의 TFP 변화를 중시해야 함. 부문별로 TFP를 분석한 적도 있지만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 하에서 TFP가 기준 시나리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님.

중국의 부동산 버블과 이에 따른 은행의 부실채권, 특히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를 중시해야 함. 완만한 경제성장, 조세 증가속도의 둔화, 취업부진 등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발전방식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명함.

질문 3.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산업구조와 취업구조를 보면, 산업구조 중 2차 산업의 비중이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취업구조 면에서는 2차 산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음.

답변 3.

이는 노동력의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공업, 서비스업으로의 농업노동력의 이전을 의미함.

질문 4.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주로 금융기관의 문제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가 비효율적이며 자원배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중국도 금융에 대한 제한이 과도한데, 중국 금융기관의 자유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현재 부실채무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답변 4.

현재 중국의 은행 리스크는 주로 은행에 대한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부실채무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기존 부실채무는 큰 문제가 아니며 잠재적인 부실채무가 큰 문제임. 부동산의 버블이 클수록 지방은행의 부실채무에 대한 우려가 큼.

금융기관의 자유화는 금융 산업의 발전방향으로, 이는 은행 관리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12차 5개년"기획 기간에 금융자유화를 발전방향으로 확정할 것이지만 그 추진과정은 국내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임. 아시아개발은행이 중국의 "12차 5개년"기획의 제정을 지원할 때 중등소득 국가의 중등소득함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많은 국가들이 중등소득국가에 들어선 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한국은 중등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의 조정이 순조로웠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인플레이션, 환율절하, 소득분배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중국은 기타 국가의 경험을 배우고 교훈을 흡수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12차 5개년"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것임.